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제주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6년 11월 5일 -



제주특별자치도
농 업 기 술 원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브로콜리 증가・양배추 감소 전망-3면	농업디지털센터	제주일보
○	브로콜리 32.7% 증가, 양배추는 19.6% 감소-3면	농업디지털센터	삼다일보
○	제주 월동채소 예상 재배면적 작목별 온도차-2면	농업디지털센터	한라일보
○	내년 재배면적 브로콜리・월동무↑-6면	농업디지털센터	제주매일
○	[독자기고] AI가 감귤 관측 현장을 바꾸고 있다-14면(현도경)	농업디지털센터	제민일보
○	[기고]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청년농업인의 정착' -10면(이봉실)	동부농업기술센터	제주일보
○	[기고] 청년농업인 정착, 함께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14면(이봉실)	동부농업기술센터	한라일보
○	[기고] 청년농업인의 정착,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데서 시작-14면(이봉실)	동부농업기술센터	제주매일
○	농업농촌소식-9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일보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13면	기술지원조정과	삼다일보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8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노지감귤 생산량・출하량이 작년보다 늘어나면서-1면	-	제주일보
○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수탁기관 모집-1면	-	제주일보
○	쪽파밭 김매기-4면	-	제주일보
○	또 지게차 작업 중 사고-4면	-	제주일보
○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실태조사 실시-4면	-	삼다일보
○	지난달 평균기온 20.2도…역대 3위-4면	-	삼다일보
○	제주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 가능… 기준은?-3면	-	한라일보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서귀포시,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자 보전 -6면	-	한라일보
○	반복되는 월동무 값 폭락‥올해는 막아낼까 -6면	-	한라일보
○	제주산 2026년 노지감귤 캐나다 첫 수출 -6면	-	제주매일
○	농협법 환영한 농민 단체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1면	-	제주매일
○	[기고] 제주 농업의 땀과 정성으로 세계를 맞이하자-14면(한국농촌지도자제주시연합회 회장 이석근)	-	삼다일보

(제주일보: 2026년 11월 5일)

○ 브로콜리 증가・양배추 감소 전망-3면

브로콜리 증가·양배추 감소 전망

농업기술원 월동채소 재배면적 추정…수급 조절·가격 안정화 추진

올해 제주지역 월동채소 중 브로콜리와 월동무는 재배면적이 늘어났지만, 양배추와 당근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4일 제주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2026~2027년산 주요 월동채소 종자 유통량을 분석한 결과,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브로콜리는 32.7%, 월동무는 2.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양배추는 19.6%, 당근은 16.8%, 양파는 14.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월동채소 예상 재배면적은 월동무 5710ha, 당근 1640ha, 브로콜리 1540ha, 양배추 1340ha, 양파 600ha 등이다.

작목별 재배면적 증감에는 지난해 출하 가격과 농가의 작목 전환, 파종기 기상 여건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가격이 오르면서 재배 선호도가 높아진 브로콜리는 조사 대상 작목 중 재배면적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제주산 월동채소의 가격 불안정과 공급 과잉으로 매년 출하 정지와 시장 격리가 되풀이 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가격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산 월동무 1만 톤에 대해 '출하 정지' 조치를 내렸다. 출하 정지된 월동무는 이듬해 1월 말까지 시장에 팔지 못하며, 농림부 허가를 받아 출하가 가능하다.

2025년산 양배추의 경우 제주와 전남에서 공동으로 시장 격리를 진행해 총 235ha에서 생산된 양배추를 산지 폐기했다.

제주도는 월동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해 제주형 자조금으로 79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으로 자율 감축과 통합 마케팅,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

도 관계자는 "월동채소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휴경을 하거나 가을메밀·녹두·검정콩 등 대체작물로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토양생태환경보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11. 5.
제주일보 3

(삼다일보: 2026년 11월 5일)

○ 브로콜리 32.7% 증가, 양배추는 19.6% 감소-3면

브로콜리 32.7% 증가, 양배추는 19.6% 감소

제주도 농기원, 2026~2027년산 종자 유통량 분석 결과 발표

출하가격·파종기 기상 여건 따라 작목별 재배면적 차이 뚜렷

제주산 월동채소 작목별로 재배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2026~2027년산 주요 월동채소의 종자 유통량을 분석한 결과 작목별 재배면적은 2025~2026년산과 비교해 브로콜리가 32.7%(530ha), 월동무는 2.2%(125ha) 늘어나는 반면 양배추는 19.6%(699ha), 당근은 16.8%(210ha), 양파는 14.8%(104ha)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종자 유통량은 지난해보다 월동무는 2.2%, 브로콜리는 32.4% 증가했지만, 당근은 6.8%, 양배추는 19.4%, 양파는 15.5% 감소했다.

농업기술원은 종자 유통량에 파종·정식기 현장 여건 등을 더해 재배면적을 추정했다.

작목별로 지난해 출하가격과 농가의 작목 전환, 파종기 기상 여건이 재배면적 증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브로콜리는 지난해 가격이 오르면서 재배 선호도가 높아졌다. 다만 수확기 일손 확보와 작업 여건에 따라 실제 재배면적은 달라질 수 있어 계속 확인이 필요하다.

월동무는 토양생태보전사업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 요인이 있었지만, 다른 작물에서 월동무로 바꾼 농가가 늘면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배추와 양파는 지난해 출하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낮아진 것이 재배면적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당근은 파종기 가뭄과 바닷바람 피해(조풍)로 다시 파종하거나 다른 작물로 바꾼 사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재배면적 증감이 곧바로 생산량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기상 여건과 생육상황, 출하 동향 등을 함께 살펴 작목별 수급 변동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농업기술원은 설명했다.

농업기술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행정의 드론 전수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해 재배면적 추정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11. 5.
김동건 기자 kdg@sam[illegible] 삼다일보 3

(한라일보: 2026년 11월 5일)

○ 제주 월동채소 예상 재배면적 작목별 온도차-2면

제주 월동채소 예상 재배면적 작목별 온도차

지난해 가격 상승한 브로콜리 선호도 높아져 증가 전망
양배추·당근·양파는 가격 하락·기상 피해 등으로 감소

제주지역 월동채소 중 브로콜리 재배면적이 올해와 내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배추와 당근, 양파는 재배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작목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2026~2027년산 주요 월동채소 종자 유통량을 분석한 결과, 작목별 재배면적은 2025~2026년과 비교해 브로콜리가 1010㏊에서 1540㏊로, 월동무는 5585㏊에서 57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당근은 1850㏊에서 1640㏊로, 양배추는 2039㏊에서 1340㏊로, 양파는 704㏊에서 600㏊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종자회사 12곳과 도매업체 8곳 등 모두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월동무·당근·양배추·브로콜리·양파 등 5개 작목이다. 조사 결과 종자 유통량은 지난해보다 브로콜리 32.4%, 월동무 2.2% 증가했다. 반면 양배추는 19.4%, 양파는 15.5%, 당근은 6.8% 감소했다.

농업기술원은 종자 유통량을 바탕으로 파종·정식기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목별 재배면적을 추정했다.

브로콜리는 조사 대상 작목 가운데 재배면적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양배추는 감소율이 가장 컸다. 이는 지난해 농산물 출하가격에 따른 작목별 수익성 차이가 농가의 재배작목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브로콜리는 지난해 가격 상승으로 재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수확기에 필요한 인력 확보와 작업 여건에 따라 실제 재배면적은 달라질 수 있다.

월동무는 토양생태보전사업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 요인이 있었지만, 다른 작목에서 월동무로 전환한 농가가 늘면서 전체 재배면적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양배추와 양파는 지난해 출하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재배면적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당근은 파종기 가뭄과 바닷바람에 의한 조풍 피해로 재파종하거나 다른 작목으로 전환한 사례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재배면적 감소율은 16.8%로, 종자 유통량 감소율인 6.8%보다 10.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농산물 가격에 따른 농가의 작목 선택 변화뿐 아니라 파종 이후 발생한 가뭄과 조풍 등 기상 피해도 실제 재배면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균 농업기술원장은 "월동채소 재배면적은 지난해 가격뿐 아니라 기상 여건과 농가의 작목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종자 유통량과 드론 조사, 현장 관측자료를 연계해 재배면적 추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농산물 수급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11. 5.
이태윤기자 lty9[illegible] 한라일보 2면

(제주매일: 2026년 11월 5일)

○ 내년 재배면적 브로콜리・월동무↑-6면

내년 재배면적 브로콜리·월동무↑
도, 종자 유통량 분석결과 발표

제주지역 주요 월동채소 중 브로콜리와 월동무의 내년 재배면적은 늘고 양배추와 당근, 양파는 줄어들 전망이다.

4일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발표한 2026~2027년산 주요 월동채소의 종자 유통량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내년 브로콜리 재배면적은 32.7%, 월동무가 2.2% 늘어나고 양배추 19.6%, 당근 16.8%, 양파 14.8%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종자 유통량은 지난해보다 월동무가 2.2%, 브로콜리는 32.4% 늘었고 당근 6.8%, 양배추 19.4%, 양파 15.5%가 줄었다.

11. 5.
제주매일 6면

는 지난해 출하가격과 농가의 작목 전환, 파종기 기상 여건이 재배면적 증감에 영향을 줬다.

브로콜리는 지난해 가격이 오르면서 재배 선호도가 높아졌다. 다만 수확기 일손 확보와 작업 여건에 따라 실제 재배면적은 달라질 수 있어 계속 확인이 필요하다.

월동무는 토양생태보전사업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 요인이 있었지만 다른 작물에서 월동무로 바꾼 농가가 늘면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양배추와 양파는 지난해 출하가격이 떨어져 수익성이 낮아진 것이 재배면적 감소로 이어졌다.

당근은 파종기 가뭄과 바닷바람 피해(조풍)로 다시 파종하거나 다른 작물로 바꾼 사례가 반영되면서 재배면적 감소율(16.8%)이 종자 유통량 감소율(6.8%)보다 10.0%p 크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작목별 가격 여건에 따른 재배 선택 변화와 함께 파종 이후 가뭄·바닷바람 등 기상 피해로 실제 재배면적이 달라진 점이 확인됐다.

농업기술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행정의 드론 전수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해 재배면적 추정의 정확도를 높인다. **박경철 기자**

(제민일보: 2026년 11월 5일)

○ [독자기고] AI가 감귤 관측 현장을 바꾸고 있다-14면

독자기고

AI가 감귤 관측 현장을 바꾸고 있다



현 도 경

제주 감귤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급관리는 농가소득과 제주농업 경쟁력에 직결된다. 생산량 예측은 적정 출하와 유통계획, 농업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다. 제주도는 매년 꽃수와 열매 수, 크기 등을 조사해 왔다. 하지만 수작업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조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인공지능(AI)과 3차원(3D) 기술을 접목한 '감귤 관측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기술개발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는 현장 활용을 위해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조사원이 스마트폰으로 감귤나무를 여러 방향에서 촬영해 제주DA 플랫폼에 전송하면 3D 모델이 구현되고 AI가 열매 수와 크기를 자동 분석한다. 지난 8월 2차 노지 감귤 관측조사에서는 필지당 조사 시간을 약 50% 단축했고 열매 수 85% 이상, 열매 크기 97% 이상의 측정 정확도를 확인했다. 수작업 부담을 덜고 데이터 수집·분석의 효율성을 높일 가능성을 보여줬다.

다만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과제도 남아 있다. 촬영 속도와 거리, 각도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누가 촬영해도 일정한 결과를 얻도록 촬영 방법을 표준화하고 조사원이 쉽게 따를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감귤 관측 자동화의 목표는 조사 시간 단축만이 아니다. 반복 노동을 덜고 일관되고 정밀한 데이터를 확보해 생산량 예측과 농업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 있다. 사람이 일일이 세고 재던 관측에서 AI가 영상으로 분석하는 관측으로의 전환, 현장 검증과 표준화로 완성도를 높이는 감귤 관측 자동화는 제주 감귤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11. 5.

<농업디지털센터 지방 제민일보 14

(제주일보: 2026년 11월 5일)

○ [기고]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청년농업인의 정착’ -10면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청년농업인의 정착’

나의 의견



이 봉 실

道 동부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장

청년농업인은 농촌에 정착하기까지는 여러 고비를 겪는다. 재배기술을 익히는 일뿐 아니라 농지를 마련하고 판로를 찾으며 지역의 농업인과 관계를 맺는 일도 필요하다. 영농을 시작한 후로도 예상 못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혼자 답을 찾아야 한다면 농업을 이어가는 일은 더욱 버겁다.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기술을 배우는 기회와 함께 비슷한 고민을 가진 동료와 경험을 나누고, 지역 안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필요하다.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고 그 결과와 어려움을 다시 나누는 과정은 배움을 실제 영농에 활용하는 힘이 된다.

이에 제주도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이 함께 배우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이들의 아이디어가 지역 현장과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부터 ‘청년농업인 스터디그룹’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축제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농업 체험 교구 개발 등 청년농업인이 배움의 참여자를 넘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농업을 알리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청년농업인의 정착은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지역의 관심과 지원 역시 함께할 때 힘을 얻는다.

앞으로도 제주도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의 미래를 준비해가는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교육과 교류를 연결하며 이들이 지역농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데 힘쓰겠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자.

11. 5.
제주일보 10

(한라일보: 2026년 11월 5일)

○ [기고] 청년농업인 정착, 함께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14면

청년농업인 정착, 함께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



이 봉 실

제주동부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장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하기까지는 여러 고비가 있다. 재배기술을 익히는 일뿐 아니라 농지를 마련하고 판로를 찾으며 지역의 농업인과 관계를 맺는 일도 필요하다. 영농을 시작한 뒤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때마다 혼자 답을 찾아야 한다면 농업을 이어가는 일은 더욱 버겁다.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기술을 배우는 기회와 함께 비슷한 고민을 가진 동료와 경험을 나누고, 지역 안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필요하다.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고 그 결과와 어려움을 다시 나누는 과정은 배움을 실제 영농에 활용하는 힘이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이 함께 배우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이들의 아이디어가 지역 현장과 만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 스스로 공부하는 모임 '청년농업인 스터디그룹'도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올해 이어지고 있다. 지역축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했으며, 활용 가능한 농업 체험 교구도 개발했다. 청년농업인이 배움의 참여자를 넘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농업을 알리는 주체로 성장한 사례다.

청년농업인의 정착은 개인의 노력과 지역의 관심·지원이 함께할 때 힘을 얻는다. 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교육·교류를 연결하여 지역농업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청년농업인이 지역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일이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지

11. 5.
한라일보 14

(제주매일: 2026년 11월 5일)

○ [기고] 청년농업인의 정착,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데서 시작-14면

[기고] 청년농업인의 정착,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데서 시작



동부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장

이봉실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하기까지는 여러 고비가 있다. 재배기술을 익히는 일뿐 아니라 농지를 마련하고 판로를 찾으며 지역의 농업인과 관계를 맺는 일도 필요하다.

영농을 시작한 뒤에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긴다. 그때마다 혼자 답을 찾아야 한다면 농업을 이어가는 일은 더욱 버겁다.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기술을 배우는 기회와 함께 비슷한 고민을 가진 동료와 경험을 나누고 지역 안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필요하다.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고 그 결과와 어려움을 다시 나누는 과정은 배움을 실제 영농에 활용하는 힘이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이 함께 배우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이들의 아이디어가 지역 현장과 만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 스스로 공부하는 모임 '청년농업인 스터디그룹'도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올해 이어지고 있다. 지역축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했으며 활용 가능한 농업 체험 교구도 개발했다.

청년농업인이 배움의 참여자를 넘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농업을 알리는 주체로 성장한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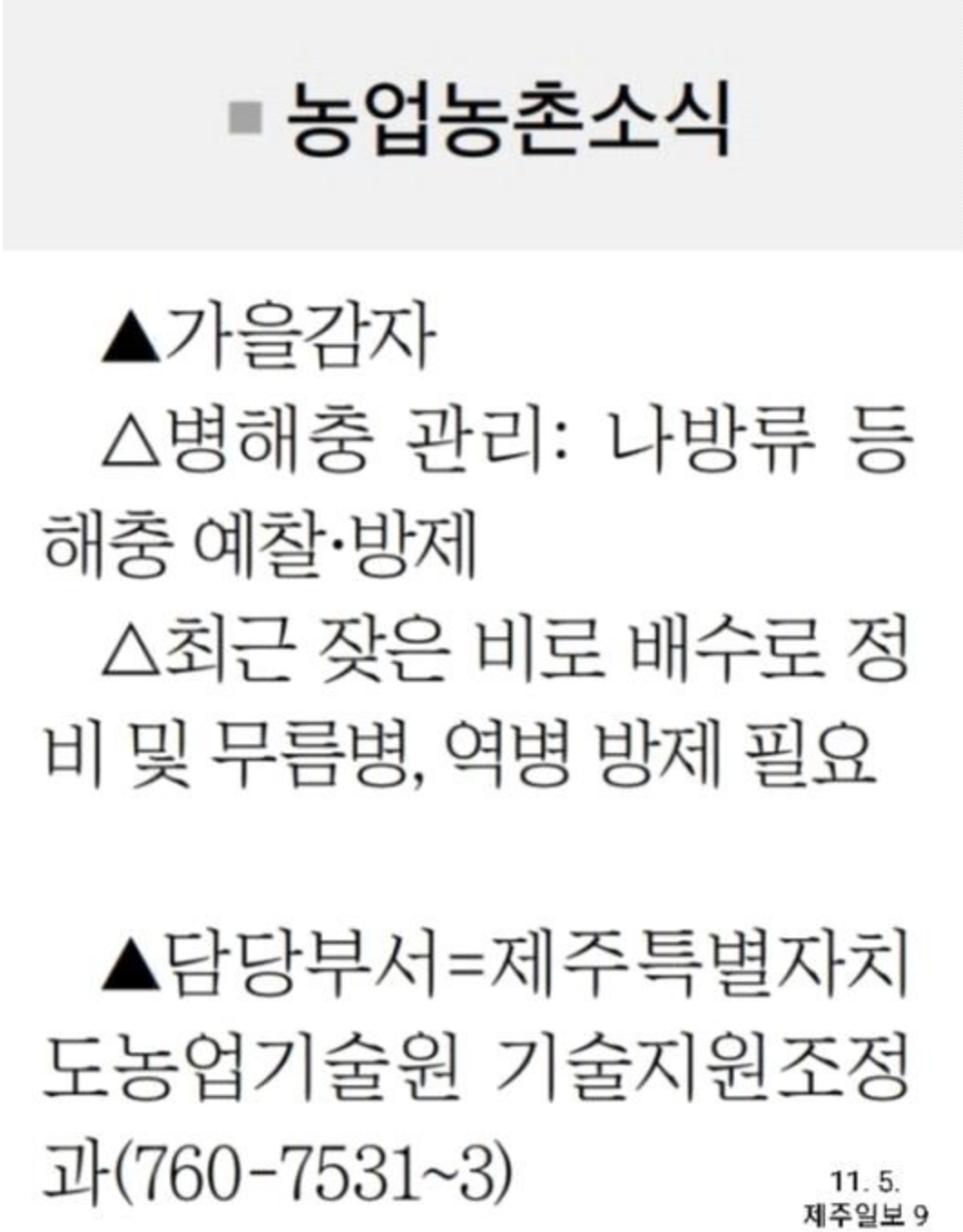
청년농업인의 정착은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지역의 관심과 지원이 함께할 때 힘을 얻는다. 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교육과 교류를 연결하며 이들이 지역농업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꾸준히 뒷받침해야 한다.

청년농업인이 지역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일이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11. 5.
제주매일 14

(제주일보: 2026년 11월 5일)

○ 농업농촌소식-9면



■ 농업농촌소식

▲가을감자

△병해충 관리: 나방류 등 해충 예찰·방제

△최근 잦은 비로 배수로 정비 및 무름병, 역병 방제 필요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31~3)

11. 5.
제주일보 9

(삼다일보: 2026년 11월 5일)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13면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기간=11월 19일(목)~23일(월)/5일간

▲장소=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3)

▲참가 인원=6만5000명 내외

▲행사성격=감귤산업의 현재와 미래, 산업·학술·문화·체험형 융복합 박람회

▲주최/주관=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주요 프로그램

△공식 행사=개막식, 폐막식, 술 대회 준비위원회 발족식

△학술·비즈니스=감귤학회, 신품종 감귤 강연, 바이어상담회, 농업부분 온실가스감축사업 설명회, 라이브커머스

△경연 행사=청년농업인혁신사례발표, 어린이사생대회, 감귤디저트 경연

△문화·공연=귤빛가요제, 열린무대, 귤빛버스킹

△체험행사=감귤따기, 감귤청·잼 만들기, 감귤꽃이 피었습니다, 감귤젠가 등

△빅 이벤트='감귤왓! No.1 감귤을 찾아라'-감귤품장 경품 체험

▲입장권 안내

△현장 구매=2000원

△사전예약 및 제주도민=1000원

△무료 입장=국가(독립)유공자, 만 13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른 등

▲문의=㈔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762-3091, 제주감귤박람회 운영사무국 732-3380.

11. 5. 삼다일보 13

(제주매일: 2026년 11월 5일)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8면

○ 무료입장: 국가(독립)유공자, 만 13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른 등

□ 문의

○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762-3091)

○ 제주감귤박람회 운영사무국(732-3380)

11. 5. 제주매일 8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

□ 추진개요

○ 기 간: 2026. 11. 19.(목) ~ 11. 23.(월) / 5일간

○ 장 소: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3)

○ 참가인원: 6.5만 명 내외

○ 행사성격: 감귤산업의 현재와 미래, 산업·학술·문화·체험형 융복합 박람회

○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 주요프로그램

○ 공식행사: 개막식, 폐막식, 술 대회 준비위원회 발족식

○ 학술·비즈니스: 감귤학회, 신품종 감귤 강연, 바이어상담회, 농업부분 온실가스감축사업 설명회, 라이브커머스

○ 경연행사: 청년농업인혁신사례발표, 어린이사생대회, 감귤디저트 경연

○ 문화·공연: 귤빛가요제, 열린무대, 귤빛버스킹

○ 체험행사: 감귤따기, 감귤청·잼 만들기, 감귤꽃이 피었습니다, 감귤젠가 등

○ 빅 이벤트: "감귤왓! No.1 감귤을 찾아라" - 감귤품장 경품 체험

□ 입장권안내

○ 현장구매: 2,000원

○ 사전예약 및 제주도민: 1,000원

(제주일보: 2026년 11월 5일)

○ 노지감귤 생산량・출하량이 작년보다 늘어나면서-1면

노지감귤 생산량·출하량이 작년보다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 압력 커질까 우려

11월 5kg에 1만5000원 예측

농경연, 작년 평균 1만6500원

올해 제주 노지감귤 생산량과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감귤 가격 하락 압력이 우려되고 있다.

10월 도매가격이 전년보다 낮게 형성된 데 이어 11월에도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이 예상된다.

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 10월 가락시장 노지감귤 상품 도매가격은 5kg당 1만3600원으로 전년보다 1.4%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시장 반입량은 전년보다 29.9% 증가했다. 반입량 증가가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1월 가격 전망도 전년보다 낮다. 농업관측센터는 11월 노지감귤 상품 도매가격이 5kg당 1만5000원 안팎에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평균 가격인 1만650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가격 하락 전망의 주요 요인은 생산량 증가다.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은 43만4000t 내외로 추정됐다. 지난해보다 5.6% 증가한 규모다.

재배면적은 1만3972ha로 전년과 비슷하지만,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전체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올해 10a당 생산량은 3105kg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생육 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했던 데다 병해충과 열과 발생이 줄어든 점 등이 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출하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11월 노지감귤 출하량은 전년보다 8.1% 늘고, 12월 이후에도 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까지 많아지면서 가격 회복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품질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9월 이후 기온이 낮게 유지되고 강우량· 강우일수가 적어 병해충 발생이 감소했고, 열과도 줄었다. 이에 따라 10월에는 반입량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가격 하락 폭은 1.4%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10월 잦은 비로 극조생 감귤의 부패과가 증가한 점은 변수로 꼽힌다. 생산량과 출하량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출하 시기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과 품질이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진주리 기자

11. 5. 제주일보 1

(제주일보: 2026년 11월 5일)

○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수탁기관 모집-1면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수탁기관 모집

도, 내년부터 3년간 운영업체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3년간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현재 주사무소가 제주에 있고, 제주농산물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돼 인력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다.

신청을 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제주도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글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710-3023)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탁기관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에 선정된다.

종합심사 결과 70점 미만인 곳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수탁기관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센터를 운영한다. 수탁기관은 이 기간 동안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실행계획 수립·시행, 품목별 재배면적과 출하·가격 정보 제공, 품목별 수급 안정 대책 수립 지원, 품질규격 관리 등을 맡는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는 생산자가 스스로 생산과 출하를 조절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자율적 수급관리의 핵심 지원 조직"이라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해 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과 제주농산물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유한 기자

11. 5. 제주일보 1

(제주일보: 2026년 11월 5일)

○ 쪽파밭 김매기-4면



쪽파밭 김매기 4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쪽파밭에서 농민들이 김매기 작업을 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제주일보: 2026년 11월 5일)

○ 또 지게차 작업 중 사고-4면

또 지게차 작업 중 사고

색달동서 60대 부상

제주에서 또다시 지게차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해 6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다. 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에서 60대 A씨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팰릿(상품 운반대)에 맞아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 상차 작업 중 지게차가 급제동하면서 차량에 실려있던 팰릿이 주변에 있던 A씨에게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업체 소속 화물차 운전자인 A씨는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6월과 10월 지게차 작업 중 운전자 2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 5.
제주일보 4

(삼다일보: 2026년 11월 5일)

○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실태조사 실시-4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실태조사 실시

제주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별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로, 최근 2년간(2024~2025년)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인과 2026년 공익직불금 등록자 등 총 [illegible]개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요 조사 사유는 보조 사업 불일치(재배 보험, 친환경 및 GAP 인증) 817건, 농약 구매 내역 없음 66건, 면세유 대장 미등재 78건 등이다. 공익직불금 등록 대상 읍·면·동이 대상자별 조사 사유와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제주시는 조사 대상자에게 농산물 판매 실적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 사유별 재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도 제출받아 실제 영농 활동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환수, 등록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공익직불금은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환경보전과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정민 기자 73jmlee@samdailbo.com

11. 5.
삼다일보 4

(삼다일보: 2026년 11월 5일)

○ 지난달 평균기온 20.2도…역대 3위-4면

지난달 평균기온 20.2도…역대 3위

4년 연속 10월 평균기온 평년보다 높아

강수량 275.5㎜로 역대 세번째로 많아

강수일 많고 기온 변동도 크게 나타나

지난달 제주지역 평균기온이 10월 기온 중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4일 제주지방기상청(청장 임덕빈)이 발표한 '2026년 10월 제주도 기후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달 제주도 평균기온은 평년(18.7도)보다 높은 20.2도로 역대 3위를 기록했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10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고, 10월 평균기온이 높은 순서로 5위 안에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이 포함돼 10월 기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10월 제주도 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는 지난해(21.9도)였으며 두 번째로 높았던 해는 2024년(20.9도)이었다.

지난달 제주지역 강수량은 평년(91.6㎜)의 세 배인 275.5㎜로 10월 중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강수일수 역시 평년(6.3일)의 2배인 13.5일로 역대 세 번째였다.

제주기상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하순까지 우리나라 남동쪽에 발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됐고, 북서쪽에서 상층 찬 공기가 유입돼 만나면서 비구름이 발달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됐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중순과 하순의 강수일수는 각각 5.5일과 6.5일로 이틀에 한 번 이상 비가 내렸다.

아울러 지난달 15일 발생한 제30호 태풍 '참피(CHAMPI)'가 북상하면서 제주도 해상에 영향을 주면서 지난달 25일 태풍특보가 발표됐다. 2014년 이후 12년 만에 발생한 10월 영향 태풍인 '참피'는 역대 가장 늦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으로 기록됐다.

임덕빈 제주지방기상청장은 "올해 10월은 이상고온과 이상저온이 모두 발생하는 등 기온 변동이 컸고, 많은 강수량이 중·하순에 집중되는 등 시기별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라며, "최근 기후변동성이 커지고 기후특성이 매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제주지방기상청은 기상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방재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기상재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samdailbo.com

11. 5.
삼다일보 4

(한라일보: 2026년 11월 5일)

○ 제주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 가능…기준은?-3면

제주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 가능… 기준은?

농지 1000㎡ 이상… 온실·비닐하우스 330㎡ 이상 예외

농막·농촌체류형 쉼터 있으면 별도 화장실 설치 불가

최근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 내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제주시는 농업인의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농지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농지 내 화장실과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안내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농지법 및 관련 시행령 등에 따르면 화장실과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1000㎡ 이상인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등 시설이 330㎡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1000㎡ 미만이더라도 설치가 가능하다. 한 필지에 설치하는 화장실의 연면적은 10㎡ 이하로 제한된다. 부속시설이 있을 때는 해당 면적이 포함된다.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는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

한 필지의 농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25㎡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농지에는 13.5㎡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농촌체류형 쉼터는 한 세대당 총 연면적의 합이 33㎡ 이내여야 한다. 농로와의 접합성 등 세부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시설 설치 후에는 농지이용정보 변경 신청을 통해 60일 이내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설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농작업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백금탁기자

11. 5.
한라일보 3

(한라일보: 2026년 11월 5일)

○ 서귀포시,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자 보전-6면

서귀포시,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자 보전

최대 연 200만원… 3년간

서귀포시가 청년농업인 정책자금에 대한 이전 보전에 나선다.

시는 '2026년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자보전 지원사업'을 추진, 오는 13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접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을 실행하고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청[illegible]인이다.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1981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의 청년농업인 중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을 실행 중인 자다.

지원 내용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 이자 금리 1.5% 가운데 0.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농가당 연 200만원 한도에서 최대 3년간(매년 신청자에 한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백금탁기자

11. 5.
한라일보 6

(한라일보: 2026년 11월 5일)

○ 반복되는 월동무 값 폭락…올해는 막아낼까-6면

반복되는 월동무 값 폭락… 올해는 막아낼까

주산지 농가 비상품 출하 차단·유통 관리 실천 결의
도, 과태료 부과·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조치

매년 되풀이 되는 월동무 가격 폭락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품을 출하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농업 보조금 교부 취소 등이 엄격히 적용된다.

(사)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는 제주산 월동무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수급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일 월동무 주산지인 성산일출봉농협 회의실에서 '제주 월동무 경쟁력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세척무의 비규격품 도외 반출 방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illegible]은 수확기마다 반복되는 비규격품(1.0kg 미만, 2.2kg 초과)의 도외 반출과 톤백 출하, 편법 박피·절단 행위가 제주 겨울무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가격 하락을 유발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세척농산물 유통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할 것을 공동 결의했다.

제주도도 '제주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 적발 시 1t 미만 100만원~5t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주형 자조금, 집하장 및 세척장비 지원 등 농업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지원 제한 등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열린 '제주 월동무 경쟁력 강화 워크숍'.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제공

도는 또 생산자의 준수사항 이행에 따른 차등 지원 방침에 따라 도내 80여개 세척장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겨울무 유통 통계 DB'를 구축하고,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와 연계한 '사전출하신고제' 도입 등 근본적인 관리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광역수급관리센터는 2026년산 제주 겨울무 안정 생산·공급을 위해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어지는 주 출하기에 집중되는 물량을 분산하기 위해 11월 조기 출하 지원사업을 통해 홍수 출하를 예방할 계획이다.

위영석기자

11. 5.
한라일보 6

(제주매일: 2026년 11월 5일)

○ 제주산 2026년 노지감귤 캐나다 첫 수출-6면



제주산 2026년 노지감귤 캐나다 첫 수출

감귤농협, 지난 3일 18t 선적

제주감귤농협(조합장 송창구)이 올해 도내에서 첫 번째로 노지감귤을 수출하며 본격적인 세계시장에 뛰어들었다.

감귤농협은 지난 3일 2026년산 노지감귤 18t을 캐나다에 수출했다.

예상대로라면 올해 12월까지 러시아, 캐나다, 미국, 동남아시아 등 10여 개국에 1500t 물량을 공급하게 된다.

농협 측은 최근 중동지역 분쟁 등 국제 해상물류비 상승과 대외여건 악재 속에서도 △현지 유통업체와 협력 강화 △현지 소비자 입맛에 맞춘 품질관리 △포장 디자인 개선 등 현지화 전략 마케팅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등 수출 품목 다변화로 감귤류를 연중 선보이며 안정적으로 수출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송창구 조합장은 "수출 물량 확대 추진으로 감귤 생산 농가들의 수취가격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감사 기자

11. 5. 제주매일 6

(제주매일: 2026년 11월 5일)

○ 농협법 환영한 농민 단체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1면

농협법 환영한 농민 단체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직선제 전환·독립 감사위 신설
"농협 개혁 첫걸음, 남은 입법 절차 조속히 마무리해야"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기존 간선제에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하 전농회 제주)은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4일 전농회 제주는 성명을 통해 "국회는 이번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남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중앙회와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이유로 개혁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고 국민의힘은 의결 전 퇴장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전국 조합원이 직접 선출토록 하고 독립 조직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직선제가 적용된다.

전농회 제주는 "개정안이 통과돼 농민이 주인이 되기 위한 개혁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농회 제주는 "그동안 농협은 누구를 위한 조직이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농협중앙회는 농민을 위한 조직이라는 목적을 잃은 채 금융·경제 조직으로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농민조합원들은 의사결정에서 소외되면서 현장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농협감사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전농회 제주는 "독립적 감사체계 도입은 권력 집중과 불투명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한 필수 개혁 과제로 농협의 비리와 부실 운영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특히 이들은 "농협법 개정을 시작으로 농산물 제값보장, 생산비 절감 등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개정안은 시대적 과제다"고 강조했다. 이감사 기자

11. 5. 제주매일 1

(삼다일보: 2026년 11월 5일)

○ [기고] 제주 농업의 땀과 정성으로 세계를 맞이하자-14면

제주 농업의 땀과 정성으로 세계를 맞이하자



이석근
(사)한국농촌지도자
제주시연합회
회장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간절한 꿈 하나를 품는다. 2028년 G20 정상회의가 제주에서 열려, 우리가 지켜온 이 땅의 가치가 세계인의 마음에 닿는 꿈이다.

제주는 세계를 맞이할 준비를 쌓아온 섬이다. 정상회담과 국제회의를 치러온 경험, 회의·숙박시설과 관광 기반, 평화의 섬이 지닌 상징성은 제주의 소중한 자산이다. 여기에 손님을 귀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도민의 마음이 더해진다면, 제주만의 품격 있는 정상회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나는 세계의 정상들이 제주의 풍경과 함께 그 풍경을 지켜온 사람들의 삶도 만나기를 바란다.

세계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에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촌을 지켜온 사람들의 목소리도 함께 닿길 소망한다. 정상회의가 제주에서 열린다면 공식 만찬과 환영 행사의 식탁부터 제주 농수축산물의 [illegible] 담아내자. 감귤 한 알에도 생산자의 정성과 재배 이야기를 곁들이고, 기념품에도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담자. 철저한 품질·위생 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을 준비해 제주 먹거리에 대한 신뢰가 행사 이후의 소비와 수출 상담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유치를 향한 열망만큼 준비도 치밀해야 한다. 공항과 교통, 숙박, 경호와 안전, 의료와 통역 등 분야별 과제를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우리 농촌지도자들도 그 준비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안전한 농작업과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드는 일,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일, 제주를 찾는 손님을 따뜻하게 맞는 일부터 성실히 실천하겠다. 2028 G20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

11. 5. 삼다일보 14